

프로그램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통역

10:00 - 10:40	개회식 / 주제 강연
환영사	김언호(金彦鎬, Kim Eounho),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주제 강연 Keynote speech	동아시아 책의 길, 10년의 의미 The Way for a Book in East Asia, The Meaning of past 10 Years
	정병규(鄭丙圭, Chung Byoungkyoo), 정디자인 대표, 한국 :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이 지난 십 년간 내건 아름다운 시대의 책은 무엇인가. 이번 교류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동아시아 책의 진정한 교류를 위한 화두를 던진다.
11:00 - 11:40	발표 1 Presentation 1
	중국의 새로운 책 만들기 운동(新造书)을 기대하며 Expecting China's New Book Making Campaign
	뤄징런(吕敬人, Lu Jingren), 정런디자인 아트디렉터, 중국 : 중국의 젊은 북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신조서(新造书) 운동, 즉 새로운 책 만들기 운동이라 부를만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디지털이 문자문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오늘날 중국의 이러한 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본다.
13:00 - 13:45	발표 2 Presentation 2
	일본 북디자인의 콘텍스트 읽기 Mapping Contexts for Japanese Book Design
	무로가 키요노리(室賀清徳, Muroga Kiyonori), 격월간 <IDEA> 편집장, 일본 : 문명사적 콘텍스트 읽기는 종합적 디자인을 가능케 하는 힘이자 경쟁력이다. 그 힘을 키우기 위해 이번 강연에서는 천 년의 문명적 척도, 백 년의 근대적 척도, 그리고 십 년의 현대적 척도 등 각 문맥에 맞춰 일본의 출판 기획과 동아시아의 디자인 표현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관계를 고찰해 본다.
13:50 - 14:30	발표 3 Presentation 3
	한성의 꿈-옛 것을 이용한 디자인 작업 The Dream of Hansheng-Designing with the Old
	황용송(黄永松, Huang Yung Sung), 잡지 <한성> 발행인, 대만 : 디자인은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결과물이다. 그러나 소비, 속도, 기술로 대표되는 '삼고(三高)' 시대에 디자이너가 고유성과 창조성을 유지하는 것은 난제와도 같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다운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을까? 다양한 작업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
14:45 - 15:15	발표 4 Presentation 4
	우리는 이미 변하고 있다: 파티, 책, 미래, 제안 PaTI, Publishing, Future, And, Suggestion
	안상수(安尙秀, Ahn Sangsoo),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날개, 한국 : 미래를 위한 변화는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진행된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근간, 즉 체계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움을 실험한다.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은 이미 주변에 존재하고 벌어지고 있는 그 움직임을 깨닫는 것이다. 안상수 날개(교장)가 파티(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시도를 통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책의 체계, 디자인의 근간에 대해 생각해 본다.
15:15 - 17:00	주제 토론 Discussion
	동아시아 책의 미래 (사회: 안상수) The future of East Asia Book (Host: Ahn Sangsoo)
	지난 10년 간 출판도시는 동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책을 위한 교류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아 미래의 책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출판 현장과 교육, 문화교류 전반을 넘나들며 동아시아 스승들의 지혜를 모아본다.

제10회 동아시아 책의 교류
Interchange Symposium of East Asia Book 2014

동아시아 북디자인 10년

2014.11.29.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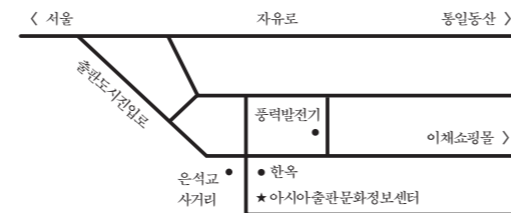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도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pajubookcity.org)에서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승용차
서울에서 일산, 통일동산 방면으로 자유로를 타고 이동, 이산포 IC를 지나 파주출판도시 진입로로 들어오시면 파주출판도시가 나옵니다.

광역버스 이용 시
합정역 1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2200번, 2100번 합정역-은석교사거리, 약 30분 소요
200번 합정역-대화역(일산)-은석교사거리, 약 50분 소요
문의 신성교통 031 949 0640

마을버스 이용 시
020번 원당역-일산, 석사동-은석교사거리
078번 백금동-금촌역-금릉역-은석교사거리
079번 금촌역-교하읍사무소-은석교사거리
087번 운정역-중앙공원-숲속길마을-은석교사거리
문의 한일운수 031 914 9991



출판도시문화재단
413-756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T 031 955 0050 F 031 955 0054 www.pajubookcity.org



동아시아 북디자인 10년

제10회 동아시아 책의 교류
Interchange Symposium of East Asia Book 2014

2014.11.29.토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주최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동아시아의 출판공동체·독서공동체를 위하여

‘동아시아 책의 교류’가 열 번째를 맞았습니다.

책으로 교류하고 소통한 우리들의 지난 십 년은 이제 하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출판문화사에 경이로운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교류 십 년은 동아시아 출판문화의 새로운 십 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주출판도시는 동아시아 출판인들과 손잡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출판인들과 저술가들이 창출해내는 빛나는 책의 문화를 응원하는 ‘과주북어워드’가 그 하나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과주에디터스쿨’을 통해 동아시아 출판의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과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도 동아시아의 출판문화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열 둘을 맞은 ‘동아시아 책의 교류’ 프로그램도 과주출판도시가 펼치는 동아시아의 출판공동체·독서공동체를 도모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책은 경계와 영역을 넘어섭니다. 책 만드는 출판인들의 문제의식은 경계와 영역을 넘어서면서 현시대의 삶과 사상을 통할(統轄)하는 인문정신입니다. 갈등하는 정치를 화해시키는 문화의 역량입니다.

‘동아시아 책의 교류’ 프로그램은 이제 더 새롭게 구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간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는 과제가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십 년 동안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경륜이 동아시아 책의 문화를 도약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2일

김언호(金彦鎬)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참가자 프로필



뤄징런(呂敬人, Lu Jingren), 정런디자인 아트디렉터

칭화대 미술학과 교수 역임. 국제그래픽연맹(AGI) 회원. <북디자인> 잡지 주편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대표작업이 <Meggs History of Graphic Design>에 수록됨. 2009년 작품 <중국기억>이 독일 라이프치히시가 수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선정되었으며, 2010년 <회수아물>로 제4회 금광국제인공모전 창의디자인상을, 2012년 작품 <전지의 이야기>로 독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은상을 수상함.



황용궁(黃永松, Huang Yungung), 잡지 <한성> 발행인

예술성과 인문적 소양을 두루 갖춘 대만 최고의 북디자이너로 꼽히며, 1971년 중국 민속문화 정보지 <한성 漢聲>을 창간함. 잡지를 발간하며 중국 전역에서 전통 민속문화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5종 10유형 56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중국 전통 민속문화 유전자 DB’를 구축함.



무로가 키요노리(室賀清徳, Muroga Kiyonori), 격월간 <IDEA> 편집장, 일본

도쿄대 미학문학부 예술학과 졸업 후 1999년 세이분도(誠文堂)에 입사하며 편집을 시작함. 2002년부터 격월로 발행되는 디자인 전문지 <IDEA>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디자인 관련 단행본의 기획과 출판도 꾸준히 하고 있음. 대표 편집물로는 스키우라 고헤이의 <문학의 미, 문학의 힘>, 고미야마 히로시의 <일본어 활자 이야기> 등이 있음. 제8회 타케오심사위원특별상 수상.



정병규(鄭丙圭, Chung Byoungkyoo), 정디자인 대표

고려대 불문과 졸업 후 민음사 편집부장, 홍성사 주관을 거쳐 1979년 디자이너로 독립하며 정디자인을 설립함. 현대 한국 북디자인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회장, 서울올림픽 전문위원, 아시안게임 전문위원 등을 역임함. 2010년 제51회 한국출판문화상 백상특별상 수상. 작품집으로 <정병규 북디자인>이 있음.



안상수(安尙秀, Ahn Sangsoo), 과주타이포그래피학교 날개

시각디자이너,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안상수체, 이상체, 미르체, 마노체 등의 글꼴을 개발함. 2007년 독일 라이프치히시가 수여하는 구텐베르크상 수상, 현재 국제그래픽연맹(AGI)회원임. 전 홍익대 디자인학부 교수, 현 과주타이포그래피학교(PaTI, 파티)의 날개(교장)이자, 런던 왕립예술학교(RCA) 방문교수, 베이징 중앙미술학원(CAFA) 객좌교수임.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역대 개요

2005. 10. 8-9

제1회, 동아시아 책의 현재와 미래

스기우라 고헤이(杉浦康平), 일본 / 뤼징런(呂敬人), 중국 / 황용궁(黃永松), 대만 / 정병규(鄭丙圭), 한국

2006. 10. 27-28

제2회, 공동출판을 위한 모색 : 아시아적 상상력과 북디자인

스즈키 히토시(鈴木一誌), 일본 / 토다 츠토무(戸田ツトム), 일본 / 우스다 쇼지(白田捷治), 일본 / 황용궁(黃永松), 대만 / 뤼징런(呂敬人), 중국 / 정병규(鄭丙圭), 한국

2007. 11. 29-30

제3회, 아시아적 상상력과 문자

우용(吳勇), 중국 / 스즈키 히토시(鈴木一誌), 일본 / 사토 마사히코(佐藤雅彦), 일본 / 소부에 신(祖父江慎), 일본 / 정병규(鄭丙圭), 한국

2008. 11. 27

제4회, 아시아적 상상력과 종이

뤄징런(呂敬人), 중국 / 주잉춘(朱迎春), 중국 / 노부히로 야마구찌(山口信博), 일본 / 정병규(鄭丙圭), 한국

2009. 11. 27

제5회, 아시아의 차세대 북디자인

한자잉(韓家英), 중국 / 샹오청양(蕭青陽), 대만 / 시라이 요시히사(白井敬尚), 일본 / 코다이라 마사요시(吉平正義), 일본 / 오진경(吳眞京), 한국 / 정재완(鄭在完), 한국 / 안지미(安智美), 한국 / 정병규(鄭丙圭), 한국

2010. 11. 5

제6회, 아시아의 차세대 북디자인 II

시아오마거(小马哥), 중국 / 양린칭(楊林淸), 중국 / 신 아키야마(秋山伸), 일본 / 다이지로 오하라(大原大次郎), 일본 / 오필민(吳弼敏), 한국 / 조혁준(趙赫俊), 한국

2011. 10. 14

제7회, 책의 디자인, 출판의 재구성

류샤오상(劉曉翔), 중국 / 무로가 키요노리(室賀清徳), 일본 / 이기섭(李起燮), 한국 / 정병규(鄭丙圭), 한국

2012. 11. 2

제8회, 동아시아 문자의 원형

나가하라 야스히토(永原康史), 일본 / 리더궁(李德庚), 중국 / 류동춘(柳東春), 한국 / 정병규(鄭丙圭), 한국

2013. 11. 29

제9회, 동아시아 책의 교류를 위하여

진가경(田佳京), 한국 / 박희진(朴喜珍), 한국 / 박지영(林志迎), 한국 / 최세정(崔世靜), 한국 / 무로가 키요노리(室賀清徳), 일본 / 야마모토 토오루(山本徹), 일본 / 왕즈유엔(王子源), 중국 / 쯤첵(曾誠), 중국 / 메이신이(梅心怡), 대만